

# 醫員 朴泰元 인물연구

<sup>1</sup>권오빈, <sup>2</sup>오준호, <sup>1</sup>차웅석, <sup>1</sup>김남일

<sup>1</sup>경희대학교 의학교실

<sup>2</sup>통일부 하나원

## Character Research On Physician Park Tae Won

<sup>1</sup>Oh-Bin Kwon, Junho Oh, <sup>1</sup>Wung-Seok Cha, <sup>1</sup>Nam-Il Kim

<sup>1</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Ministry of Unification,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Hanawon)

Park Tae Won is one of the physicians that participated in the treatment of King Injo in 『承政院日記(Seungjeongwonilgi, official records of incident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forms of actual medical treatment, soci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physicians at that time by organizing Park Tae Won's records as a physician and his other works.

Park Tae Won was originally an acupuncturist for the royal medical department but he performed other activities such as actual diagnosis and drug prescriptions. More concretely it seems that he used methods mentioned in 『鍼灸經驗方(Chimgugyungjeonbang)』.

Park Tae Won held concurrent positions as royal physician as well as provincial governor. It is suspected that physicians were named provincial governors of metropolitan areas so that they could be brought in immediately when in need and so that the capital centered medical service could be distributed to other provinces. We can also presume that the appointment of physicians as provincial governors was part of the government policy to efficiently distribute aid to the common people.

From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physicians of that time did not commit solely to their jobs but also held important social positions that led the Joseon society.

keyword: Park Tae Won, Chimgugyungjeonbang, Seungjeongwonilgi, Joseon Dynasty

### I. 序論

왕실에서 행해졌던 의료서비스는 그 당시 최고 수준의 의학이 총동원되었던 가장 선진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대 왕실의 진료에 참여했던 의사들도 그 당시 의료의 수준을 대변할 만큼의 의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당대 왕실진료에 적극 참여했던 의원의 행적을 중심으로 의료의 수준, 진료의 형태, 그리고 의사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의

학에 대한, 의사에 대한 많은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朴泰元은 仁祖시대 승정원 일기에서 仁祖의 진료에 참여한 의원 중 한명이다. 그는 이조판서를 지낸 박문충의 아들로 태어나 의관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사위, 외손자까지 의관을 지내게 된다. 이조판서의 아들로서 주로 중인계급이 담당했던 의관을 지낸 것으로 보아 당대에 반드시 중인이 아니어도 의원을 하였는지 朴泰元이 서출 등 출생의 제약으로 그의 형제들처럼 양반의 관료를 지내지 못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차후에 정3품에 해당하는 통정대부에 오르는 등 의원으로서, 또 그 이상으로 仁祖의 신임이 투터웠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군수로 재직했던 과천시에는 그의 선정비가 있을 만큼 의학 외적인 활동도 활발했던 사람이다.

접수 ▶ 2009년 9월 7일 수정 ▶ 2009년 9월 15일 채택 ▶ 2009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1-0671 E-mail southkim@khu.ac.kr

이에 朴泰元의 의원으로서의 기록을 정리하고 그밖의 행적들을 알아봄으로써 당대 의원들의 실제 진료형태, 사회적 위치와 활동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 II. 本論

### 1. 朴泰元의 가계

#### 1) 충헌공과 족보에 기재된 朴泰元의 가계

朴泰元은 기축(1589년)생. 충헌공과 14세 밀양박씨 시조 55세 朴泰元 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부때부터 관직을 한 집안이다. 장남쪽의 가계에도 그 관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朴泰元으로부터 후대에는 그 아들, 사위 등 의관에 오르는 식으로 가계가 형성된다. 15세기말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사대부의 전문직 진출이 꺼려지는 풍토가 생긴다. 이 시기는 15세가 초, 중엽으로서 그 시기를 딱 구분해서 언급하기는 좀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의관은 보통 중인계급의 전문직으로 형성되는데 朴泰元의 경우 집안에서 그냥 반가에서 의과쪽으로 (실제로는 늦은 나이에 무과에 합격하였으나 이는 관직에 있어서 좀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있음.) 전문성 있는 관직을 선택했거나 신분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서출)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추정된다. 족보에 따라서, 판본에 따라서 서출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 『醫科先生案』 『太醫院先生案』에 나타난 가계의 특징

역대 의관을 지낸 인물들의 내역이 기재된 『太醫院先生案』과 『醫科先生案』에서 朴泰元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太醫院先生案』 밀양박씨, 朴泰元이 겸직했던 다른 관직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醫科先生案』의 경우는 朴泰元이 의학 시험 합격자로서 직 접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朴泰元의 후대가 대거 의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2. 朴泰元의 활동

#### 1) 朴泰元이 역임했던 관직

특별채용의 형태로 침의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위의 내용을 봐도 ‘임금 앞 써 려항의 경험을 관함에 즉 가히 알 수 있다. 朴泰元은 閭閻에서의 유효함이 많은 즉 朴泰元에게 침을 맞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 즉 내의원 밖의 유의에게 침을 맞아야 할 것이 아닌가’<sup>1)</sup> 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한다. 仁祖 17년에 이미 내의원이나 내의원으로서 려항에서의 진료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우선 『醫科先生案』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그리 추정하여 본다. 또한 무과에 합격할 당시 연령이 49세이며 이미 廣興主簿의 전력이 있고 이때는 또한 이미 의과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sup>2)</sup>. 朴泰元이 지낸 관직명 중 副司果, 引儀 같은, 실무보다는 봉록을 위한 관직을 주기 위한 조직이었다고 보여진다.<sup>3)</sup> 또한 朴泰元의 관

1) 『承政院日記』 仁祖 17년 8월 22일 (정미) 崔鳴吉曰, 臣等多有經歷事, 中腕, 以朴泰元下鍼, 如何? 上曰, 以閭閻經驗觀之, 則可知, 朴泰元, 多有效於閭閻, 則受鍼於朴泰元, 可也. 不然則當受於外方儒醫矣. 柳後聖曰, 使外方之人, 決難下鍼矣. 小臣點穴, 而使朴泰元下鍼, 宜當矣. 上曰, 彼言, 如何? 崔鳴吉曰, 外方未經驗之人, 恐難進鍼於至尊前矣. 上曰, 依爲之. 上曰, 此人必善鍼術也. 一番受鍼於此人後, 其夜寢睡, 頗安矣.

2) 『丁丑庭試文武科榜目』 朴泰元(朴泰元) [무과] 仁祖(仁祖) 15년(1637) 정축(丁丑) 별시(別試) 병과(丙科) 2463위 생년 기축(己丑)1589 합격연령 49 본관 밀양(密陽) 거주지 경(京) [이력사항] 전력 : 광흥주부(廣興主簿) [가족사항] [부] 성명 : 박문충(朴文冲) 증직 :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

3) 『承政院日記』에서 언급된 朴泰元의 관직  
仁祖 11년 6월 22일 朴泰元爲豐儲倉主簿  
☞ 풍저창 : 조선시대에 중앙의 모든 경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1년에 설치하고 뒤에 장흥고와 합하였다.  
☞ 풍저창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직책을 맡은 것이 처음으로 나옴.  
仁祖 15년 12월 10일 (갑진) 朴泰元爲幹川縣監  
☞ 금천 : 현재의 시흥  
☞ 현감 : 종6품의 외관직. 조선시대의 현감은 현령(종5품)이 관할하는 현보다 작은 고을의 원님이었다. 당시 지방의 말단기관장인 역(驛)의 찰방(察訪:종6품)과 동격인, 지방수령으로서 가장 낮은 관직이었는데, 조선시대의 현감은 138명에 이르렀다.

仁祖 18년 10월 12일 (기미) 朴泰元爲副司果  
☞ 조선시대 5위(五衛)에 두었던 종6품 무관직.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76명이었으나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수가 183명으로 늘어났다. 후기에 5위가 무보직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 바뀐에 따라 부과사에도 친공신, 승습군, 공신직장, 군관, 금군 등 보직이 없는 문관, 무관, 음관, 잡직등이 등용되었다.

仁祖 20년 1월 28일 (무술) 朴泰元爲內膳主簿  
☞ 內膳은 내섬시(內膳時)의 약자로, 각 궁전에 대한 공상(供上), 이품(二品) 이상에게 주는 술, 왜(倭)·야인(野人)에게 주는 음식과 직조(織造) 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다. 즉 여기서도 장부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는다.

仁祖 20년 2월 18일 (무오) 朴泰元爲引儀  
☞ 조선 시대에, 통례원에 속하여 의식에서 식순에 따라 구령을 외치는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문관 벼슬.

仁祖 20년 6월 6일 (갑진) 下直, 積城縣監朴泰元.

仁祖 20년 6월 28일 (병인) 下直, 果川縣監朴泰元.

仁祖 21년 5월 21일 (계축) 龍仁縣令李馨益, 通訓今加通政, 果川縣

직 중에는 유독 지방관을 역임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당시 자연재해, 또는 전쟁, 흉작 등의 폐해가 많은 지방에 구휼의 의미로 의관들을 지방관으로 파견한 경우가 많았던 지방관 임용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왕의 가까이에서 진맥을 하고 질병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왕과의 신임도 두터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진다.<sup>4)5)6)</sup> 의관으로 이미 활동한 이후에 무과에 합격하였고, 집안은 사대부 집안이라고 하나 후손들이 하나같이 의관으로 진출한 것으로 볼 때 朴泰元의 경우는 사대부 출신 유의라고 보기 보다는 의과 전문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朴泰元은 의과가 전문직인 경우로 왕의 신임을 두터이 받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의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수시로 왕래하여 왕의 진료에도 참관했다. 또한 과천현감 당시에는 선정비가 세워질 정도로 현감의 직책 또한 훌륭히 해낸 것으로 보아 여러가지 실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본 朴泰元의 활동

#### 1) ‘中脘鍼’의 의의

7) 仁祖 17년 8월 22일 (정미) 鍼醫潘沖翼. 朴泰元·尹會益, 受鍼鍼間使及八穴, 潘沖翼下鍼, □行間·大陵·中脘, 則朴泰元下鍼.

仁祖 17년 9월 3일 (정사) 蔡得沂, 先入, 察色後, 受針下中脘, 朴東元下針 - 朴泰元의 오기로 보임

仁祖 20년 6월 12일 (경술) 中脘穴, 令朴泰元執鍼, 可也.

☞ 중완은 朴泰元이 집침

仁祖 21년 2월 22일 (병술) 원본84책/탈초본5책 (8/17)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受鍼時 李溟 등이 入侍하고, 受鍼後 生脈散 1貼을 陪進하고, 三提調가 안부를 물음

○ 受鍼正時, 巳正, 穴處,

前十三穴, 加曲阜左右二穴, 執鍼臣李馨益,

臨泣二穴(三稜鍼) 左足部阿是三穴(圓利鍼) 執鍼臣朴泰元,

☞ 삼릉침, 원리침, 중완 등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朴泰元이 집침을 한 것으로 보임

이형익은 화침, 또는 일적인 평침을 주로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 朴泰元은 허임과 동시대 인물로 초기에는 같이 활동하기도 하였다. 시기적으로 봐도 당시 침의들은 위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쩌면 朴泰元의 中脘鍼 기술을 許任이 차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8)</sup>

#### 2) 朴泰元과 『東醫寶鑑』

『承政院日記』 仁祖 27년 5월 7일의 기사에는 朴泰元이 약처방을 한 기록이 보인다.

仁祖 27년 5월 7일 (을축) 원본105책/탈초본5책 (4/5) 1649년 順治(淸/世祖) 6년

都提調 등이 熙政堂 東庭에서 淸心元 등을 배치해 두고 대비함

○ 都提調以下進詣熙政堂東庭, 救急藥物淸心元·九味淸心元·蘇合元·竹瀝薑汁·童便·鷄卵·半夏末·皂莢末等藥, 熙政堂後庭排置, 待候進用, 月經水和淸心元三器進御. 戌時末, 百沸湯六瓶入. 初更時, 朴泰元入診出言, 自上熱候極盛, 省息氣急, 喉中且有痰響, 直視手搖, 臍腹似有脹矣, 右手脈若有若無, 左手脈亦甚微細云. 卽以竹瀝一升, 和薑汁九味淸心元六丸, 分三次連進, 月經水以赤鹽壺三次進御

☞ 처방으로 九味淸心元<sup>9)</sup>이 쓰임.

薑汁, 竹瀝은 주단계의 학설에서 차용한 것으로 생각할

監朴泰元, 通訓今加通政

☞ 정3품 문관의 품계. 고종2년부터는 종친의 품계로도 쓰임. 仁祖에게 총애를 받던 이형익과 같은 수준의 품계를 받음. 통훈은 종3품, 통정은 정3품.

仁祖 26년 1월 3일 (기해) 安山郡守朴泰元

☞ (현재의 경기도 안산). 벼슬이 높아짐. 종4품.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당시 군수는 모두 82명이었는데, 군수는 일반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나, 그 주된 임무는 공물(貢物)·부역 등을 중앙에 조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4) 김양수 「조선시대 의원실태와 지방관진출」 『동방학지』 1999년 『仁祖實錄』 권 46, 동왕 23년 9월 20 (무진) 仁祖 23년 9월에는 사간원이 의관으로 邑宰를 임명하지 말것과 부임한자도 바꿀 것을 누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5) 김양수 「조선시대 의원실태와 지방관진출」 『동방학지』 1999년 1999년의관출신 내의원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의학이론에 밝은 사대부출신 유의들을 썼는데 이들은 고관벼슬에까지 승진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

6) 『仁祖實錄』 권 46, 동왕 23년 9월 20 (무진) 仁祖 23년 9월에는 사간원이 의관으로 邑宰를 임명하지 말것과 부임한자도 바꿀 것을 누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7) 실제 시술한 흔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承政院日記』에 나온 朴泰元의 진료기록과 간단한 해설을 직접 본문에 올리기로 한다.

8) 方書에 云 中脘穴은 鍼入八分이나 然而凡人之外皮內胞 各有淺深하니 銘念操心하라 納鍼皮膚면 初似堅固나 徐徐納鍼하야 已過皮膚면 鍼鋒이 如略空中하고 至其內胞면 忽覺似固하며 病人이 亦致微動이니 然後에 停鍼留十呼하야 徐徐出鍼이니라. 凡諸穴之鍼則或間一日行鍼이로대 而中脘則每間七八日而行鍼하고 鍼後에 雖頻數食之라도 慎勿飽食하라. 不爾則有害니라

- 『鍼灸經驗方』 許任 중 중완에 침 놓는 방법

9) (九味淸心元) 『東醫寶鑑』 蒲黃 二兩半 犀角 二兩 黃芩 一兩半 牛黃 羚羊角 麝香 龍腦 各一兩 石雄黃 八錢 金箔 一千二百箔內四百箔爲衣 ○治心胸毒熱 ○左末 煉蜜丸 兩作三十九 金箔爲衣 每一丸 熱水化下(九味淸心元) 『火』 上焦熱 ○治心胸毒熱 蒲黃二兩半犀角二兩黃芩一兩半牛黃一兩二錢羚羊角麝香龍腦各一兩石雄黃八錢金箔一千二百箔內四百箔爲衣 右爲末蜜和兩作三十九金箔爲衣每用一丸熱水化服(醫說)

- 『東醫寶鑑』 許凌

수 있다. 이 역시 『東醫寶鑑』에서 주단계의 이론을 인용한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東醫寶鑑』 간행(1613년 광해군 5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왕실 진료에 이미 『東醫寶鑑』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시점이다. 실제로 朴泰元이 『東醫寶鑑』을 공부하여 九味清心元을 처방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랬다면 침의로서 활동하였으나 약처방에도 관여를 할 만큼 왕실 진료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는 朴泰元의 단독 입실 진료의 기록으로 보인다. 朴泰元의 진료 기록은 다른 문집에서도 보이는데<sup>10)</sup> ‘痰滯於肉骨間’ 이 병의 원인이라 보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朴泰元의 진료에서 痰을 없애는 처방을 썼으며 여기에서도 痰이 병의 원인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자침의 경우도 소화기쪽, 脾胃 쪽의 자극을 목표로 하는 中脘鍼을 놓은 것으로 보아 朴泰元은 주로 痰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진단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III. 결론

1. 朴泰元은 왕실 진료에서 주로 침 치료를 담당했던 침의였으나 상황에 따라 직접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정하는 등의 의료활동을 폭넓게 담당하였다. 특히 仁祖에게 中脘에 침을 놓는 경우는 朴泰元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中脘은 내장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술부위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鍼灸經驗方』에 언급된 中脘鍼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朴泰元은 왕실진료를 담당함과 동시에 果川縣監, 衿川縣監 등의 지방관을 겸직하였다. 이는 당시에 의원들에게 수도권의 지방관을 지내게 하여 진료에 필요할 때 즉시 도성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중앙에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지방으로 나누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의원을 지방관으로 삼음으로써 백성들에 대한 ‘救恤’을 효과적으로 베풀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朴泰元의 아들, 사위, 외손자 등 朴泰元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의원을 지낸 기록을 통해 당대에 전문직의 대물림이 제도권 안에서도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4. 이를 통해 당대의 의원은 전문직으로서 해당 업무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조선시

대 사회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IV. 참고문헌

#### <單行本>

1. 김두중, 『韓國醫學文化大年表』, 탐구당, 1981.
2. 朴齊道, 『密陽朴氏 族譜 甲子譜』, 1744.
3. 朴長復, 朴英載 『密陽朴氏 族譜 辛卯譜』, 1831.
4. 朴長興, 『密陽朴氏 族譜 辛亥譜』, 1851.
5. 朴孝正, 『密陽朴氏 族譜 丙子譜』, 1861.
6. 朴鳴載, 『密陽朴氏 族譜 壬寅譜』, 1842.
7. 朴容求, 『密陽朴氏 族譜 壬寅譜』, 1962.
8. 李植, 『澤堂先生集卷之六』
9. 鄭太和, 『陽坡遺稿卷之十三』
10. 尹文學, 『石湖先生遺稿卷之二』
11. 許任, 『鍼灸經驗方』, 1644
12. 『醫科先生案』
13. 『太醫院先生案』
14. 『丁丑庭試文武科榜目』
15. 『朝鮮王朝實錄』
16. 『承政院日記』
17. 『果川郡邑志』 1899

#### <論文/雜誌>

1. 김양수, 「조선시대 의원실태와 지방관출신」, 『東方學志』 1999
2. 이규근, 「조선시대 의료기구와외관-중앙의료기구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999
3. 손홍렬, 「조선전기 의관의 임용과 그 사회적 지위」, 1986
4. 김양수, 안상우, 「조선후기 의관집안의 활동 - 이현양, 등 안산이씨가계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2006

<sup>10)</sup> 伏承四度下書。仍審氣力支勝。伏慰萬萬。弟所患症。到今察之。則明是痰滯於肉骨間。朴泰元等。皆以爲無憂。第腦後地位要害。若不消散。則有癡結之患。以此。日事針灸及服藥。而根抵膠固。小無收效之勢。攻病日久。元氣先憊。將欲停針止藥。以觀之耳。碑碣刻事。自十七日始役。五人各日刻七八字矣。碑文改節事。方與趙俞諸賢議之。其往復書呈上。此中所見。亦多參差。奈何。吾意。亦與武仲同。故使俞就來草中。拈出義理形勢兩款。以爲請改張本。未知於正義如何。數日後。俞兄將奉趙老書。出見石室改定。而與來意。亦不相合。還恐更貽亡羊之歎也。或云敘事。則因說無妨。總論。大闡義理之說。尤好云。未知如何。坡山表役。磨治已畢。刻事方始矣。追送改書。已即傳致耳。端午後。戊辰001君上來。似已晚矣。若遷葬及吾家碑誌事。則非戊辰002君。難圖矣。弟欲待病間。一往坡山。看詳刻事。趁開月念間。下歸耳。趙懷仁喪內。驚慘。賻木二疋。自此將送之矣。弔狀。亦當都狀以送耳。申泰安遺孀僅蘇。故來書及別紙。時未傳致耳。追贈官教五張。已得成出。而未有可信之便。不得即上。伏歎。己丑四月二十八日。 - 『石湖先生遺稿卷之二』 - 上仲氏童士先生

<웹사이트>

1.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2.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3.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5.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jsik.kiom.re.kr/>